Analyst: Yuanta Research (중국)
+86 21 6187 3832 / research@yuanta.com
번역: Yuanta Research (한국)

지방 양회 2026년 GDP 성장률 목표치 하향, 중국 CSRC IPO 제도 최적화 필요성 언급

연초 이후 A 주 시장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월 30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우칭 주석은 상장기업 대상 좌담회를 개최하여 "15차 5개년 계획," 제도적 포용성, 상장사 품질제고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IPO 제도 최적화, 리파이낸싱 효율 제고, 장기 투자 자금 유입 유도,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제도 개선,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창업판(ChiNext) 및 과창판(STAR) 개혁 심화, 베이징증권거래소와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NEEQ)의 일체화 발전 추진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향이 명확히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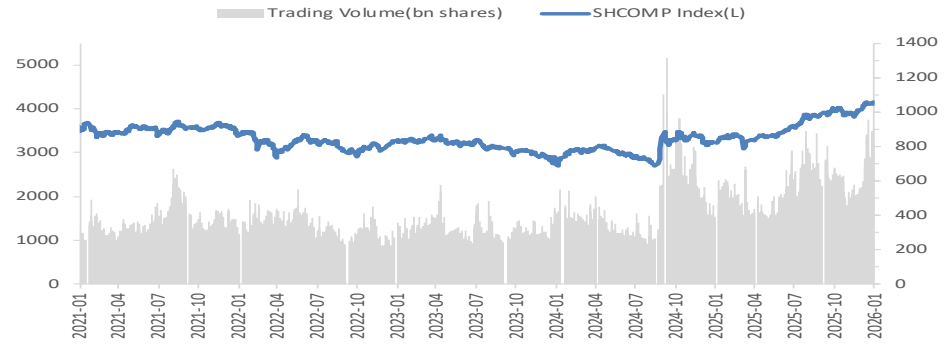
지난 2주간 광둥, 허난, 베이징, 톈진, 저장, 허베이 등 10개 이상의 성과 시에서 지방 양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다수 지역에서 2026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흐름이 확인되었다(평균 약 0.5%p). 특히 광둥성과 저장성이 처음으로 구간형 성장 목표(range target)를 제시했는데, 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좀 더 중시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동반한 횡보 국면이 예상되지만, A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중기적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상해종합지수가 4,100pt에 도달한 이후 차익 실현 압력을 소화할 필요가 있는데다, 춘절 연휴를 앞둔 계절적 거래 위축까지 겹치면서 고점권에서는 변동성을 수반한 반복적 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미중 무역 상황, "15차 5개년 계획"의 가이던스, 자본시장 시스템 개혁 및 최적화, 자산 배분 논리, 금리 인하에 따른 신규 자금 유입이 중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 3가지 측면에 주목할 것이 권고된다. 1) AI 컴퓨팅 파워 밸류체인: 기대보다 높은 신이성테크, 중제기전의 잠정실적이 섹터의 견조함을 증명했으며,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AI 어플리케이션 기반 컴퓨팅 파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2) 전력기기 수출: 글로벌 AI 컴퓨팅 파워 구축이 호황기에 진입하면서 변압기가 컴퓨팅 파워 인프라의 핵심이 되었다. 국내 선도 기업들은 이미 2027년까지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고, 미국향 인도 주기가 127주로 연장돼 막대한 수출 잠재력을 보여준다. 3) 설 연휴 기간 소비자 지출: 연휴 전 성수기의 수혜를 입고 있는 기호식품, 영화, 방송 미디어, 문화관광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 발간일 2026.02.04

중국 시황

상해종합지수 수익률



자료: Bloomberg, Yuanta Investment Consulting